Emmanuel

임마누엘

Vol.2, June 30, 2013

CONTENTS

자녀 교육에 소중한 것 2
나를 세우신 말씀 (1) 4
나를 세우신 말씀 (2) 6
Who Holds the Brush 8

I. 행전 스타일
임마누엘 Youth 이야기 10
AWANA 14
임마누엘 한국학교 16
기도하는 엄마들 18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라 20
AMASE 22
Six Reasons Young Christians Leave Church 24
에녹과의 만남 26
새들의 노래 28

II. 소금과 빛의 생각
엔돌핀과 스트레스 30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우주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키우라! (1) 32
전도의 프로 34
SPONSOR A CHILD TODAY 36

III. Fortran Drive 사람들
왜 나에게만 38
믿음의 계보를 소망하며... 40
하나님의 선물 42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44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46
Pneuma of India 48
나의 찬양 50
영화 Ends of the Spear 52
행복한 사람들 54

교육위원회 특집

자녀 교육에 소중한 것

1975년 여름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제 2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던 시절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두 가지 교훈이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식탁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즐거움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자녀 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식사시간은 그냥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즐거움, 함께 먹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 밥 한 톨도 아끼는 절약 정신을 배우는 교육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도 식탁은 단지 고픈 배를 채우는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그곳에서 우리는 효와 예절을 배웠고, 가족을 느꼈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자녀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족을 회복하려면, 우선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을 회복해보세요. 식탁에 함께 앉아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밥상 교육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설거지조차 안 시키는 부모들이 대다수이지만, 과거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노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꼴을 베고, 염소나 소를 먹이고, 동생을 돌보고, 온갖 심부름을 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우리는 지게를 지고, 땔감을 하고, 어른들을 따라 논에 모내기도 하고 밭에서 풀을 매고 서툰 솜씨로 새끼줄을 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족애를 느꼈고 섬기는 기쁨을 맛보았고 노동이 힘들수록 열매도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노동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며 인격이 성숙해갔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노동을 천대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노동은 운동과 매우 비슷합니다. 힘이 들고 땀을 흘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노동을 싫어하고 운동은 좋아할까요? 더욱이 노동은 돈을 받고 하고 운동은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도 운동하기는 좋아하고 돈을 받는 노동은 싫어할까요? 운동은 스스로 좋아서 하기 때문에 기쁘고, 노동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한 가지가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면, 간단한 '사고의 전환'만으로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노동을 훈련합시다.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게 합시다. 일의 열매를 보며 보람을 느끼게 합시다. 섬김을 통해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합시다. 어려서부터 노동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갖게 합시다. 그의 생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 19).

이 형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흙에서 땀 흘려 일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흐르는 땀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씻어 내리며,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을 걷습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일합시다. 일하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건강해 질 것입니다.

손원배 목사

나를 세우신 말씀 1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임마누엘 교육부호를 통해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전도사님들, 교사들로부터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 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수록 감수성이 민감하여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기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학교나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하고 폭력적으로 변하여 파괴하고 멸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세계 곳곳에 난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인터넷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게임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겨우 두 세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 스마트폰의 게임을 연결해 손에 쥐여 주어 혼자 놀게 맡겨놓는 부모들의 모습을 교회 내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에 익숙해지면서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한창 뛰어놀아야 될 어린이들이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쳐부수고 살인하고 피를 보이는 폭력적인 게임일 수록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밤낮없이 놀아주는 게임기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육1부에 속해있는 학부모, 교사, 전도사님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지켜내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타 교회를 섬기는 친구 장로님으로부터 한 글로 된 책을 모아 교도소에 기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으로는 꽤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없다는 것과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가 없으니 사랑을 전할 방법도 없고 사랑에 대한 표현을 들어 보거나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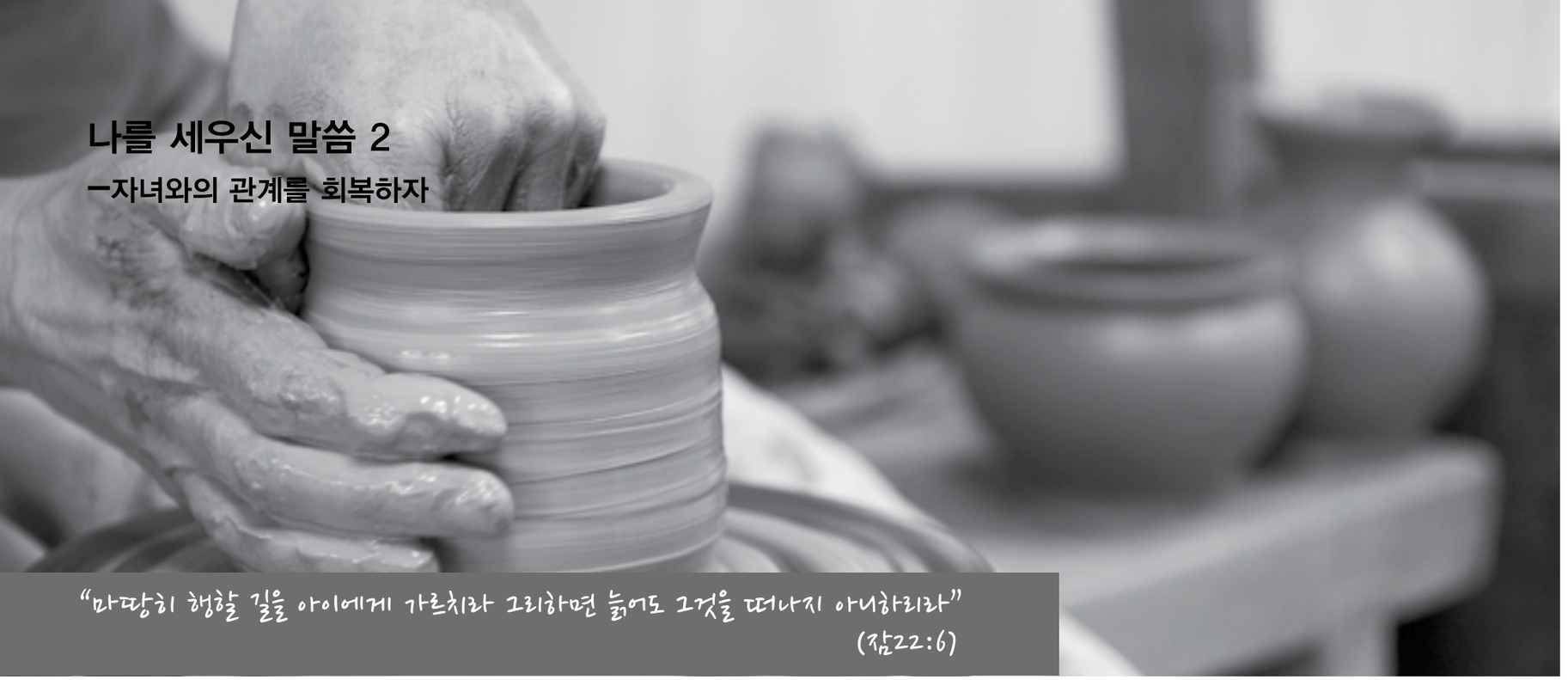
여러분은 언제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는지 지난주를 한 번 세어 보세요. 식사 시간에 우리 자녀의 관심이 무엇인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상 이야기부터 친구 관계 혹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소한 이야기와 더불어 주말 계획표뿐 아니라 자녀의 한 주간 시간표도 함께 짜 본다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한 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기적인 물질문명과 맞서 인성을 키우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학부모, 교사,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야 할 것이고 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며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로해 주고 질병이나 각종 장애, 정신이 박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회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재목이 될 수 있게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께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심령에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 하시는 학부모, 교사, 전도사님들 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 오남근 장로 (제1교육위원회)



나를 세우신 말씀 2

ㅡ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도 나름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침을 먹고 나면 곧 점심이고 점심을 먹고 나면 곧 저녁때가 된다고 하니 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짐작이 된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관심과 생각을 흩트리고 마음을 분주케 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주위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결코 중요하지도 가치 있지도 않은 지나친 사소한 일로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우리는 정작 보여야 할 그리고 집중해야 할 관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 일은 비단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각자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답하는 등 서로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곤 한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내용은 피상적이고 단답형의 대화가 되고 대화가 끊기기 일쑤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불필요한 일들에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시간까지 빼앗기다 보니 대화와 관계는 점차 단절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이해의 거리는 멀어져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게 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숨기고 부모로부터 도망치게 된다.

나는 얼마 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오기까지 하였다. 물론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다. 지난 부활절 중고등부 세례예식에 참여하였는데 그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간증들을 듣고 마음이 뭉클함을 느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대하고 보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 갈등과 상처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오늘 시대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나도 세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 사춘기였던 아이들에게서 종종 "Never mind"라는 말을 듣곤 하였다. 이 말은 대화가 안 통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주로 자녀들이 쓰는 표현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나 또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 할 수 없었다. 내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해하기보다 말씀을 들어 나무라곤 하였다. 단절된 관계에서 하는 권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상처만 주는 독설일 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부모 된 우리도 먼저 자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가가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녀도 우리 부모에게서 멀어지면 세상 것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생이기 이전에 부모이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전에 옳고 그름의 권면을 들을 수 있도록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바쁘게 보냈던 시간을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쏟아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신앙적 환경을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대희 장로

생각하는 동화

Who Holds the Brush

by Katherine Loop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yet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Ecclesiastes 3:11

Emma watched with amazement as her father dotted the canvas with various colors. "Father, what are you doing?" Emma's father paused his artwork. "Wait and see," he smiled.

Emma tried as hard as she could to be patient, but it wasn't easy. She knew her father was a masterful artist, but she certainly couldn't see what he was doing! As she looked at the painting, all she saw were unrelated blotches of color. But soon those apparently meaningless specks of color transformed into lifelike trees, flowers, and people. Suddenly, the canvas came alive with a vibrant landscape.

Emma gasped in wonder. "Oh, Father, it's beautiful!" she exclaimed. She'd never seen something so spectacular in her life.

"You knew what you were doing all along, didn't you?" Emma's father smiled. "Yes, child, I could see the finished piece in my mind's eye long before I even began.",

"I don't think you should use so much black," Emma declared. She was watching her father paint once again, and was certain that he was doing it wrong this time. "You should try some lighter, prettier colors." Emma's father just shook his head and kept spreading the black paint across the canvas.

"Emma, I know what I'm doing. This black is necessary, I assure you.", "But you didn't use black last time!" Emma argued. "That's because I was painting something different last time. You wouldn't want all my paintings to look the same, now would you?" Emma supposed not, but she still could not understand the need for the black paint. Only after her father had finished the entire painting did Emma see the picture her father had had in mind from the very beginning.

Emma was beginning to learn that each one of her father's pictures were unique. And they weren't always of beautiful or spectacular things. Emma's father loved to capture the simple and everyday things as well as the extraordinary ones. His brush could transform even the most mundane object into something special.

One day Emma was playing in her father's workshop. Her father had warned her to be careful, but she had forgotten his instructions. In her carelessness, she brushed up against one of the containers of paint, spraying the canvas with brown streaks. Emma burst into tears. Oh, how she had blown it this time! She had ruined her father's painting! She tried to fix the painting, but her efforts only made the brown streaks worse. She finally found her father and showed him what she had done. "I'm so sorry, Father!" Her father wrapped his arms around her. "I forgive you, Emma. And I will work despite those brown streaks. Don't worry." Then, to Emma's complete amazement, her father proceeded to finish his picture. He softened the dark streaks she had made into branches of trees or edges of paths. Emma couldn't believe it. Her father was such a good artist that he could work even in her mistakes!

Emma looked at the canvas skeptically. She sure couldn't understand what her father was doing this time! But she wasn't going to worry or try to guess like she had in the past. She'd seen enough to know that her father knew what he was doing, and since he was the one who held the brush, she didn't need to worry. He would reveal what he was painting in his good time.

http://newsletters.christianperspective.net/2007/april07.htm. Accessed 24 January 2013.

임마누엘 Youth 이야기...

중고등부 학생들은 보통 학교를 일주일에 40시간 다니고 학원과 다른 보충 수업까지 합치면 일 주일에 50-60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30분의 말씀과 30분의 성경 공부만으로는 학생들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제자 훈련과 REST program을 준비했습니다.

REST(Retreat Every Saturday)
: Saturday Youth Program from 7:30-9:30PM

12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와 기도, 게임과 친교로 친해지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학기는 전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Bowling, Ice Skating, Lazertag 등의 친교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라이드와 공부 때문에 걱정과 부담이 되시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은 교회 전도사들과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데이빗 김 (고등부 전도사)

고등부:
데이빗 김 전도사
408-470-9788
janghyunee@gmail.com

중등부:
Sarah Chang 전도사
schang213@gmail.com

Please pray for us!

*중고등부 단기선교:
-7/1~6 샌프란시스코 City Impact (www.sfcityimpact.com)
-7/7~20 Joint Mission Trip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8/6-9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or stop me at church any time. I would love to talk with you and get to know you better! God bless you and all the children and youth of our church!"

2013 Class Competition

The Discipleship Training (제자훈련)

About 55 middle school students attend the Discipleship Training class. We have been studying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chapters 5-7) this year. I chose this because the Sermon on the Mount describes what the Christian daily life ought to be like, and what sort of character and lifestyle Christians should have in order to be a light to the world.

It has been an incredible year in Discipleship Training class. Sometimes the students give insights that I would never have thought of on my own! No matter what age we are, the Word of God speaks powerful truth, and everyone's perspective can be valuable and necessary.

Our high school students are now in the Book of Revelations, a book that often confuses students, but is important to remember Jesus Christ as our first love, be filled with the glorious vision of God's throne room, and understand the reality of life and death. – Sarah Chang(중등부 전도사)

"––– Saturday nights are especially well known for hanging out with friends or studying. However, since last August, I decided to hang out with God and learn more about Him. Through Rest, I was able to encounter God and deepen my relationship with Him ––– a chance to focus on God every week by providing me with a place set apart from my distractions. Rest provided me with rest. All the pressure and anxieties that I felt from school vanished when I came to Rest. God gave me peace, and my academic life was much better than before. Without Res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survive this year."

– David Han (High School 11th grade)

2013 Class Competition

REST Reflection

"––– After dropping off my sisters at REST, I would often drive away to a quiet coffee shop to plow through all my homework, study for SAT's, and crunch out college essays. ––– My first semester of my senior year was probably one of the hardest ––– and most of all, thirsty for God's presence in my life once again. I knew I wasn't pursuing Christ through the way I invested my entire life in academics and my own success ––– and choosing not to attend REST was one way I separated myself from God. When second semester came around, I dedicated my Saturdays to REST and DT(Discipleship Training), and God has honored the few hours far more than I deserve. Whether we praise, read God's Word, or fellowship, I leave REST blessed and equipped ––– God has taught me through this past year, we are called to seek Him first and to prioritize His will above our own."

– Rebecca Roh (High School 12th grade)

Middle School Discipleship Training Testimonies

Discipleship Training helped me grow spiritually this past semester because I've started to think about how my actions can affect others through even the littlest things. I continue to strive on loving those that are hard to love and saying things I really mean to my friends, and I will continue to read God's Word to build my house on the solid foundation. I am thankful to God for the continuous grace He's given me no matter how many times I hide away from him.

– Kayla Yoon (8th grade)

I am thankful for Discipleship Training. They've impacted my life so much. I can stop worrying about keeping my 'treasures' here, and I'm starting to feel closer to God. God is telling me to relax and give my life up to Him. I'm thankful for the pastors who've been passionately teaching, and just so that we can understand our purpose/value about God. They've influenced me to listen, try to understand, focus, and I take those lessons to my heart.

– Joanne Kim (7th grade)

Discipleship Training taught me many thing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 learned is that I should never be anxious about the future, because God has a plan for everything. I am so thankful for the messages and pastor Sarah for rebuking (in a very good way) and being straightforward as to what's right and what's wrong to do.

– Danielle Hong(7th grade)

I'm thankful for my new life that I have in Jesus. Because of what I learned from Discipleship Training, I stopped getting into trouble, have less fight with my sister, and I love my enemies. I try to follow Jesus in my daily life like sharing the gospel, praying for others and helping others. Because of Jesus my life started changing.

– Chris Lim (7th grade)

Discipleship Training helped me to realize that there is no reason to keep earthly treasure, but store treasure in heaven. After Discipleship Training, I learned how to become closer to God. I really thank God for letting me, as a sinner, know Him and receive His love.

– Samuel Lee (6th grade)

AWANA,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커가기!'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er who has no need to be ashamed, right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2 Timothy 2:15) The name of the AWANA program comes from this verse. AWANA stands for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In today's world, people of all ages seem to be living for some type of approval. Retiring seniors seek approval from institutions for retirement funds. Working adults seek approval from their bosses for promotions. High School students seek approval from college boards for acceptance into top universities. What about our young children? What type of approval will they seek as they grow and mature in this world? Will they live for the approval of people? Or will they live for the approval of their Creator, the One True God of the Bible? What is our role as the older generation in God's kingdom? Will we help and train the next generation (our children) to be those who do their best to present themselves to God as one approved?

Those who are approved by God have no need to be ashamed. God's opinion and God's approval is all that ultimately matters for every person in this world. AWANA exists here at KEPC to make sure our children know this truth and live it out.

The AWANA program at KEPC is split into 3 clubs. Children in Kindergarten to 2nd grade meet in the 'Sparks' club. Children from 3rd to 5th grade meet in the 'Truth & Training (T&T)' club. And children in Middle School meet in the 'Trek' club. The clubs get together every Wednesday night from 7:30 to 9:00 p.m. during the school year.

So what exactly happens at AWANA? Perhaps the best way to understand what happens is to describe the different sounds you'd hear on any given Wednesday. The first sound you'd hear is a buzz of excitement as children and leaders arrive in the CM room. The atmosphere is anything but still. Then you would hear the truth of God's word cutting through the open air as the Holy Spirit carries the voice of the AWANA Commander into the hearts of the listeners. Once the clubs are dismissed to their separate meetings, you would hear chanting coming from all directions. Some of the chanting might resemble battle cries as children compete for points in the game room. Other sounds of chanting are not as loud, but just as consistent. You would hear children in the classrooms reciting Bible verses in order to better acquaint themselves to the God of the Bible. All the while, you would hear leaders (parents, single adults,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speaking words of affirmation and encouragement to the little hearers. Perhaps some words directly from the mouths of students and leaders will help you understand better what AWANA is all about. As you read on, open your heart to how God would like to use you in training up the next generation for Him. – Daniel So(초등부 전도사)

어와나를 통해 받은 은혜 한마디

"I like the games because they're fun. But handbook time is fun too, because I get to catch up on God's word. I'm blessed because I get God's word and it's fun too, so I'm blessed I can be here." (Benedict Song, Age 9)

"God has used AWANA as a time to realize my talents and sins. He made AWANA a stronghold in a terrible week." (Samuel Suh, Age 13)

"I learned many things about God's love and how my life should be lived on earth. Throughout the week, AWANA assured me in trials and temptations throughout the week. He taught me to love and constantly reminded me that our life on earth is to build His kingdom." (Kaylee Chung, Age 13)

"I have been blessed through AWANA by learning more about God and learning things I've never knew about Him. I enjoy learning how I could be saved during AWANA." (Jaewon Choi, Age 12)

"생명의 말씀 씨앗을 뿌립니다. 아이들이 말씀 구절을 외우면서 그 마음 밭에서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장차 커다란 나무가 되고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이 나라의 참으로 필요한 인재로 자라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늘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WANA!" (신상훈, Sparks Leader)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마음 밭에 심어져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 가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빛이 되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WANA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Kevin Chung, Sparks Leader)

임마누엘 한국학교에는 작은 한국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1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한국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지식보다는 한국인의 공동체 속에서 즐거워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가를 매주 연구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IQ 수업보다는 EQ 수업 위주의 놀이, 게임, 생각하기와 실천하는 읽기, 말하기, 쓰기를 병행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세 시간의 한국어 수업, 특별활동(축구, 종이접기, 그리기, 서예)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수업은 한글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역사까지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학교의 각반을 소개하자면,

처음 유치반에서 자음과 모음 글자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책 읽기, 동요 부르기, 동시 외우기를 시작으로 한글을 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다져지는 기초반을 거쳐 다음 초급반에서는 유치반에서 배운 기본 한글이 주로 동화책 읽기와 받아쓰기,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하도록 가르칩니다. 말하기 듣기가 되는 중급반은 어휘력 향상과 쓰기에 힘쓰며, 반 별로 다양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휘의 경우, 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한 교과서를 기초교과서로 하여 집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의성어/ 의태어, 속담, 한국어 만화 성경 읽기, 독후감 쓰기, 시와 수필 쓰기,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집 풀기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영어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한영반도 있습니다.

점점 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중급반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해 고급반으로 그리고 SAT를 준비할 수 있는 반으로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 한명 한명에 항상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간구드리며 이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역할에 한국어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발걸음을 임마누엘 한국학교로 옮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한국학교

봄

눈이 녹으면서 보이는
초록색 세상
모자를 바꿔쓰는 산
마음도 따듯해 져요

기쁘게 흘러가는 물
노래를 하는 새들
바람도 따듯하다

– 서선재

엄마

엄마 곁에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나면 잠이 든다.
매일 같이 자면 매일 좋은잠 잘 수 있어.
잠이 안오면 엄마랑 같이 자면 금방 잠들지.
엄마는 파란 하늘 나는 흰 구름

– 신성욱

기도하는 엄마들
(Moms in Prayer International)

2013년 봄학기 화요여성예배 (화요일 오전 10시)에서는 '기도하는 엄마들 반'이 새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MIPI)은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Poway에 본부를 둔 총재 펀 니콜스와 전 세계 엄마들이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국제적인 기도운동단체입니다. 1998년 한국에서도 프리셉트(최복순 사모: 현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총재)에서 출간하는 소책자(기도하는 엄마들)와 함께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이 시작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 화요여성예배에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엄마들이 소그룹이 되어 정기적으로 매주 한 시간씩 모여,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친 엄마의 인도로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으로 그리스도인 엄마들, 할머니들 그 누구라도 기꺼이 기도하기 원하는 여성들의 기도 모임이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김혜경 전도사

큰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를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현실을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화요여성예배에서 기도하는 엄마들 (Moms in Prayer International) 세미나가 개설되었고, 저는 다른 엄마들과 함께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MIPI의 중보기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중보자의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이기심과 잘못된 동기를 몰아내고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니 힘 있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친구들을 만나 주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친구들에게서 보호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확신하는 바에 견고해져서 또래의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의 학교 환경에 영향을 미쳐 성경적이고 높은 도덕적 가치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기를,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교사들이 탁월성과 창의성을 갖고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지속해서 기도했습니다.

MIPI의 기도가 조금 익숙해졌을 무렵, 남편이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자녀를 위한 MIPI 기도 방법을 남편에게도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큐티 본문을 갖고 MIPI 기도 방법에 따라 매일 남편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필요했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놓고 기도하던 날이었습니다. 본문에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남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향을 처리하는데에도 필요한 절대치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만드시는 데에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고 힘들더라도 남편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뒤이은 말씀에, 요셉이 사람을 시켜 바로에게 아

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바로가 요셉의 뜻대로 승낙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 뜻을 온전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자신이 직접 바로에게 가 청하지 않아도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었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남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도와줄 성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남편이 일하는데 지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편의 선한 의도가 방해 없이 책임자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결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주변 상황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고, 많은 부분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와 자녀의 학교뿐만 아니라, 남편과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엄마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현아

<소그룹 클래스 간증문>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라'

"하나님 믿고 살면, 어떤 일을 하고 살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2010년 세례를 받고 하나님 모르는 남편 앞에서 아들을 크리스찬으로 키우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안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게서 분리되고 동시에 해결책이 보이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던 터라 제 입에서 그런 확신이 술술 나왔더랬습니다. 같은 말을 화요여성예배 소그룹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라' 반에서도 하였는데, 인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냐"고 물으셨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확신을 갖고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선포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뤄내야 할 사명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천 방법을 나누는 그 자리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큰 목적 아래 제가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라' 클래스를 찾은 좀더 구체적인 이유는 6살 난 아들이 킨더가든 수업 시간에 말을 안듣는다는 보고를 거의 매일같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매일 아침 학교에 보낼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고, 오후에 데려올 때는 선생님께 준우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묻고 잘못한 날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한가지 액티비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 그렇지... 크면서 나아지겠지...' 하는 위로로 하루를 그럭저럭 넘기다가도 어떤 날은 대화 중에 화를 참지 못해 큰소리 치는 저를 보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훈육 방법과 확신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제가 사용하고 있던 미국식 페런팅 방법이 과연 성경적으로도 옳은가 하는 궁금증과 함께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붙잡아야겠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23)와 마태복음 15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기초로 삼고 있는 테드 트립 목사님의 책 'Shepherding a Child's Heart'를 공부하며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좋고, 한국어도 영어도 아직 서툴다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준우의 경우를 그 말씀에 비추어보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가 하는 말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권사님의 권고를 통해 저는 그간 인사 잘하고 얌전한 예의 바른 아이, 즉 마음보다는 행동이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엄마 말 안듣고 제멋대로 하는 아이를 혼내던 훈계의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 세우기가 깔려있었다는 것과 아들의 마음을 돌볼 생각은 않고 화가 난 엄마의 마음 좀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에 급급했던 저를 돌아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라는 자리가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지르고 화내는 것은 협박으로 순종을 얻으려는 비성경적 방법임도 되새겼습니다.

아울러 세련되고 호율적으로 보이는 미국식 페런팅 방법들, 즉 타임 아웃,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앞뒤 고려 없이 주는 우선권, 이걸하면 저걸 주겠다는 계약과 보상의 방식 모두가 수박 겉핥기식의 행동 고치기 방법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훈육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이 배로 들고,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더디 나타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혼자만 다 차지하고 싶은 죄성을 대화를 통해 알려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 룰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기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같은 말에 질려 질식할 것 같아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주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준우의 행동이 금방 달라지지 않고 타임 아웃이 줄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에 여유가 아주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어땠어?"하고 묻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도 타임아웃 이야기로 끝나기 일쑤이다 보니 준우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구랑 놀았어?", "오늘 아트 수업 했어?", "PE 시간에는 무슨 게임했어?"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때 반갑게 대꾸해 주었더니 지금은 다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며칠전에는 친구 서너명이랑 화장실 변기에서 장난치다 화장실을 온통 물다바로 만들어 부모님과 학교 관리 직원 두명에게 쓴 사과의 편지 이야기를 꺼내며 자기가 잘못했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성숙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2주 전 쯤 그려온 그림입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꿇고 기도하는 6살하고 조금 더 먹은 자신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니 기도한다는 고백이 저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어디에서 인용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대일 양육 교재로 쓰고 있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녀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말라던 목사님의 소름돋게하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남편과 함께 전도의 첫번째 대상자 아들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을 품어봅니다.

–남정난

AMASE

Who they are

AMAS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enriching education through programs in both music and the arts for special needs children. They envision a world where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are enabled to perform music and exhibit artworks with their professional peers and share God's love, joy and peace throughout their community, nation, a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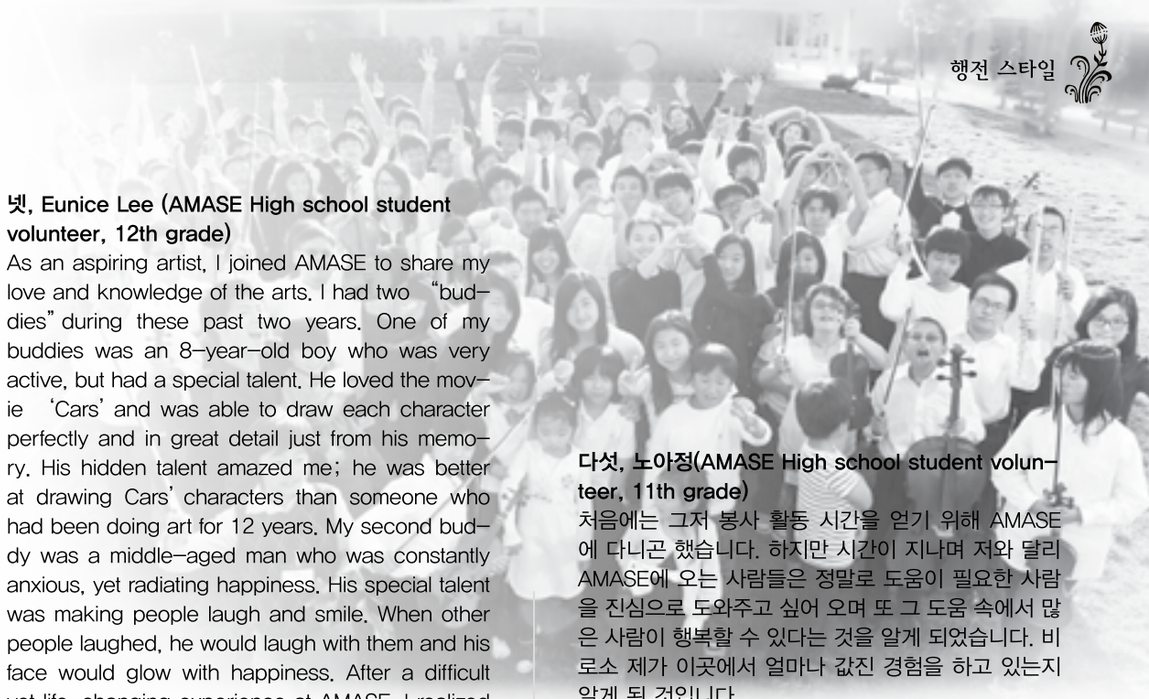
www.amase.us

함께 품는 사랑 이야기

하나, 백재은 (AMASE Founder/Executive director)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언가 늘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그보다 그저 같이 음악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 있었던 것, 그 자체로 학생들이 배워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변화되어 나비가 됩니다. 한 학생이 나비로 날아오르기까지 함께 고치가 되어 품는 것, 분주함으로가 아닌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점점 더 빨라지고 바빠지는 이 홍수 속에서 저희에게 '어메이즈'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범람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하는 곳, 그래서 그 방주 타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항해는 저희가 약할 때 강하신 예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둘, 구지현 (AMASE 교사 봉사자)
남편 직장 때문에 San Jose로 이사를 온 후 기도의 응답으로 AMASE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가슴이 매우 아팠고 과연 이들에게 내가 도움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Art 를 가르치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에 그저 안쓰러워 보이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지 몸이나 생각이 조금 불편할 뿐이며 하나님 보실 때 누구나 다 똑같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작품이 나올 때마다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이들에게 배우고 있었음을 압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훗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셋, 안소영 (AMASE 학생 어머니)
저와 제 아들 규섭(Alan)의 행복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시간, 바로 규섭(Alan)이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AMASE 입니다. 17살이지만 아직 시간 개념도 확실하지 않은 아이가 절대 틀리지 않는 스위스 시계처럼 월요일과 금요일 학교를 다녀오면, "엄마, 콘서트 안가?" , "엄마, 콘서트 언제가?"하며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규섭이의 콘서트는 AMASE 랍니다. 매번 행복하게 음악을 즐기는 녀석을 보며, 하나님께서 규섭이에게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 중에 음악이 있나 보다 믿게 된답니다. 참 많이 부족한 부모여서 집에 피아노가 있지만 한번 쳐보게 하지도 않았는데, AMASE를 통해 규섭이가 피아노를 배운 후, 아이의 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오른손 하나지만 C, D, E, F, G를 차례로 누르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모습에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음악과 art를 통해 얻는 규섭이의 행복은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가진 그대로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규섭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랑으로 단단히 채워져 은혜로 성장하는 AMASE가 되도록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넷, Eunice Lee (AMASE High school student volunteer, 12th grade)
As an aspiring artist, I joined AMASE to share my love and knowledge of the arts. I had two "buddies" during these past two years. One of my buddies was an 8-year-old boy who was very active, but had a special talent. He loved the movie 'Cars' and was able to draw each character perfectly and in great detail just from his memory. His hidden talent amazed me; he was better at drawing Cars' characters than someone who had been doing art for 12 years. My second buddy was a middle-aged man who was constantly anxious, yet radiating happiness. His special talent was making people laugh and smile. When other people laughed, he would laugh with them and his face would glow with happiness. After a difficult yet life-changing experience at AMASE, I realized the glory and various gifts of God. Although we, including the 'buddies' in AMASE, are far from perfect, God provides each and every one of us with a talent and gift that makes us different and special in our own ways.

다섯, 노아정(AMASE High school student volunteer, 11th grade)
처음에는 그저 봉사 활동 시간을 얻기 위해 AMASE에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와 달리 AMASE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오며 또 그 도움 속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값진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제 첫 buddy는 Austin이라는 20살 정도의 형입니다. 처음 그 형과 만났을 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 형을 도와주는 buddy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Austin 형과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더러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다고 하니 자기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경험담을 얘기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며 불평불만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AMASE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즐겁게 배우고 지내는 것을 보며 값진 경험을 쌓지만,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AMASE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서로 돕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Jedd Koong (AMASE Student)
I've attended AMASE since 2006. For the first 3 years of attendance, my parent wanted me to learn music. But now I realize it is not only my parent decision but also my decision to go to AMASE. I enjoy learning music, art, and Korean language at AMASE. The AMASE teachers and volunteers are so responsible, respectful and kind to the Special Needs including me. AMASE helps to discover the ability what God gave to all of us, I think.

일곱, Gene Kim (AMASE Student)
It may be hard at AMASE and during the practice at home at certain times because of my vision limitation. But when I see how the volunteers and teachers are all putting effort to help and support me and others, I feel like I have to give them the same attitude. I enjoy practicing because of the volunteers and teachers.

Six Reasons Young Christians Leave Church

Reason #1: Churches seem overprotective.

Reason #2: Teens' and twentysomethings' experience of Christianity is shallow.

Reason #3: Churches come across as antagonistic to science.

Reason #4: Young Christians' church experiences related to sexuality are often simplistic, judgmental.

Reason #5: They wrestle with the exclusive nature of Christianity.

Reason #6: The church feels unfriendly to those who doubt.

Five Myths about Young Adult Church Dropouts

Myth 1: Most people lose their faith when they leave high school.

Myth 2: Dropping out of church is just a natural part of young adults' maturation.

Myth 3: College experiences are the key factor that cause people to drop out.

Myth 4: This generation of young Christians is increasingly "biblically illiterate."

Myth 5: Young people will come back to church like they always do.

Source: Barna Group Research
For more information – www.barna.org/teens-next-gen-articles/534-five-myths-about-young-adult-church-dropouts

Liberty Institute는
크리스천의 법률적 권리
옹호기관입니다.
그들이 싸웠던 그리고
싸우고 있는 세상과의
전쟁 10가지!

세상은...

1. 학생에게 성경을 나눠준 교사를 해고했다.
2. 교수가 학생들에게 '예수'라 쓰여진 종이를 발로 밟으라고 시켰다.
3. 교육구가 치어리더들의 성경구절이 쓰여진 배너를 금지시켰다.
4. 목회자가 점심 시간에 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예수 그림을 학교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다.
6. 교회 이전시 교회 성장을 막기 위해 차별적 구역 조례를 집행하고 있다.
7.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이스카웃 정책 변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8. 오바마 정부 보건사회복지부는 크리스천 단체와 사업체도 인공유산을 커버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9. 베테란 추모식이 크리스천 의식으로 행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10. 모든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언급을 추방하고자 한다.

The world is ...

1. Defending a teacher who was fired because he gave a student his Bible.
2. Stopped a university from allowing a professor to demand that students stomp on a paper with 'Jesus' written on it
3. Stopped a school district's ban that prohibited cheerleaders from quoting the Bible on run-through banners at sporting events
4. Stopped 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 from banning youth pastors' visits to school campuses during lunch
5. Litigating to stop another attack by the FFRF, which is seeking the permanent removal of a picture of Jesus from a school after 65 years
6. Stopped the enforcement of a discriminatory zoning ordinance that blocked a growing church from relocating
7. Advising the Boy Scouts of America in their recent policy dilemma and how the decision could greatly impact religious liberty
8. Working to stop Christian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from being forc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s HHS mandate to provide insurance for abortion-inducing drugs and directly violate their religious beliefs and conscience
9. Working to stop veterans memorials from being torn down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in California, Maryland, Massachusetts, Montana, North Carolina and Oregon
10. Working to stop fearful communities and schools from having to cave into the 1,004 letters sent to public entities by the FFRF and similar anti-religious freedom groups, demanding that all references to God be removed from the public arena.

온 세상이 꽃으로 수를 놓은 듯 벚꽃이 곱게 핀 지난 4월 14일 주일 예배 후, 에녹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에녹 평원의 김영수 집사님 댁을 방문하였다. 방문하고 보니 눈을 의심할 만큼 연세보다 20년 이상 젊어 보이셨고 현관에 들어서자 매우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 주시며 시종일관 겸손하고 환한 미소로 차분히 인터뷰에 답변해 주셨다.

에녹과의 만남 —김영수 집사님편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뵈니까 연세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건강하고 젊어 보이시는데 먼저 가장 궁금한 연세와 아름답게 나이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1917년 12월 9일생이니까 97세예요. 그저 항상 말씀 암송하고 감사해하니 건강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 30분씩 매일 걷고 있어요. 걷는 것이 건강의 제일 비결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단거리 선수로는 나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100m 같은 것은 나를 따라잡지 못해서 내가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많이 방해를 놓았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 지와 거의 100년 가깝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모태 신앙으로 우리 집안은 지금까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은혜라면 이 시간까지 아무 질병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죠.

일평생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오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과 찬양이 무엇인지요?

시편 23편과 데살로니가전서 5:16~18말씀("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에요.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두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88장(내 진정 사모하는)과 543장(저 높은 곳을 향하여)이에요. 88장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이 좋아하게 되었고 543장은 앞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전엔 성대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이 차고 기도할 때도 한참 기도하면 숨이 차서 힘들어요.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과 믿음의 주역인 차세대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권면의 말씀 한마디 들려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양육하며 바르게 신앙 생활하게 함이 부모의 역할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선한 길로 가며 친구를 잘 사귀어 믿음 생활 굳건히 하기를 권하고 싶어요.

집사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기도와 건강한 몸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과 6남매 온 가정 식구들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뤄가기를, 그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신앙의 습관은 무엇인지 듣고 이제 인터뷰를 마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 기도 후에 시편 23편과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 말씀 암송하는 것, 교회서 준 성경읽기표대로 날마다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큐티표 대로 큐티하는 것이 변함없어요.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영적으로 더 할 수 없이 맑으신 모습과 감사가 습관이 되신 삶, 어린아이같이 밝고 환한 미소를 지니신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과 에녹 평원이 집사님같이 보배로운 믿음의 어버이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저력이며 교회 성장의 비결임을 새삼 깨달은 자랑스럽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었다.

– 편집부 김정신

새들의 노래

들립니까 이 소리
신 새벽 열리는 소리
아직
사방 어두운데
조금씩 조금씩
어두움 밀어내고
빛 으로
다가오는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붉게물든 동녘하늘
환희의 깃발로
펄럭이는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내가 알고있는 세상과
아직
알고있지 못하는 세상이
두 손 마주잡고
악수하는 소리

–윤영숙

The Bird Song

Do you hear the sound
The sound of dawn opening upon us
And yet
All remains dark
As little by little
The darkness is pushed away
And the light
Makes the sound of its approach

Do you hear the sound
A rosy flash in the eastern sky
Banners of joy
And the sound of flags fluttering in the wind

Do you hear the sound
It is the world I have known
And yet
The world I know not
Hand in hand
It is the sound of their embrace

- Young S. Yune

* This poem was published in the Korean American Literature Magazine, 1994
(Originally written by Korean.)

엔돌핀과 스트레스

1975년 영국 애버딘 대학의 생화학자 코스터리츠 박사는 강력한 식물추출물 진통제인 몰핀(opium 즉, 아편의 유효성분)의 200배 정도 효능을 지닌 물질이 뇌(시상하부)에서 생성되는 것을 밝혀냈는데, '체내에서 생성되는 몰핀'이라는 의미(endogenous morphine)로 '엔돌핀'이라고 명명하였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지닌 마약인 몰핀의 효능보다 훨씬 뛰어나면서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적은 물질이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베타 엔돌핀, 감마 엔돌핀, 알파 네오 엔돌핀 등 다양한 엔돌핀들이 발견되었다.

이 엔돌핀은 웃으며 기쁘게 지낼 때 많이 나온다고 세간에 알려졌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 실상은 오히려 극심한 고통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나오게 된다. 즐겁거나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분비가 억제되다 위급상황일 때 분비가 촉진되는 것이다. 평상시 건강한 사람에게 몰핀을 투약할 필요가 없듯이 엔돌핀 역시 평상시에는 분비가 억제되다 절박한 상황에서 분비가 촉진된다. 실례로 산모의 경우 분만 중 엔돌핀 분비량이 최대였다가 출산 직후부터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서서히 평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의학의 침(鍼) 역시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켜 진통 효과를 보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침술 마취 후 강력한 진통 효과를 이용하여 각종 수술을 하는 것, 스포츠 손상 후 침 치료를 받고 즉시 경기에 재투입되는 것, 극심한 복통이 침에 의해 완화되는 것 등의 현상들이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엔돌핀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신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과도한 분비가 지속되는 경우 원치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약리학 정보에 의하면 너무 오랜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 엔돌핀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면 마약 중독현상처럼 사회성 결여, 망상, 환각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면역력 저하로 말미암은 각종 감염증, 종양 발생 촉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엔돌핀의 분비가 꼭 필요한 때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속해서 엔돌핀 분비량이 증가되는 상황, 즉 위급상황이나 스트레스 환경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

"엔돌핀이 그 뛰어난 효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려면 스트레스 상황을 신속히 빠져나오고,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건..."

잡혀 자기 자신의 기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생각을 과도히 해서 신경을 손상시키면 그로 인해 피로하게 되고 그 피로 때문에 지치고 원기를 소모하게 되며 생명력을 잃게 되면 아무리 건강의 비결을 배우더라도 건강과 장수를 얻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이 연상된다.

엔돌핀이 그 뛰어난 효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려면 스트레스 상황을 신속히 빠져나오고,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은 자립하고 성장해가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고 충분하지 못한 경험 등으로 인해 기인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성인의 스트레스에 비해 증상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후유증도 크게 남을 수 있기에 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우리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요령 몇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자.

첫째, 소통하기(섣불리 평가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기). 공감해 주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무력감이 회복될 수 있다.
둘째, 펑펑 울기. 너무 잦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많이 힘들 땐 때로 슬픈 영화 등을 보며 펑펑 울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휴식 취하기.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분노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콘서트장 등에서 크게 노래하기 ,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음식 등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운동하기.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하면 새로운 힘이 솟는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큰 호전이 없다면 전문 병원이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모든 시도에 앞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를 병행할 것을 강권한다.

– 이태업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우주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키우라! (1)

미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큰 위기 속에 놓여있다. 세계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사회, 문화, 정치, 가정, 교육 등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창출해 내었던 미국이 초심을 잃은 위기 가운데 크리스천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앙의 자유를 잃고 있다.
둘째,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치적 이유'와 '법안'들로 정당화되고 있다 (예: 동성결혼, 살인적 낙태, 남녀 성 정체성 혼돈시키기 등)
셋째, 다음 세대를 책임질 공립학교가 완전히 어두운 영의 지배 아래 통치당하고 있다.

잃어버리는 신앙의 자유

지금 미국에서 다른 종교는 '문화'로 용납이 되지만 (예를 들어, 이슬람) 기독교에 대한 미움과 핍박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록 소수의 반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며 무서운 것 없이 큰소리로 크리스천 가치관을 모독하고 빈정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빈정거림을 넘어서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반기독교적이며 크리스천의 와해를 겨냥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 미국에서 내쫓고자 한다는 것이다. 타협하지 않으면 아예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무죄'로 미화시키는 문화와 법안들

미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신 것들을 미화, 정당화하고 타협하여 문화 속에 만들어 내고 있으며 지난 4년은 미국 237년 역사상 가장 많은 반기독교적 법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 전쟁은 오바마 정부가 있는 한 계속 될 것이다.
AB154 법안: 정식 의사가 아니더라도 산파나, 임상 간호사, 의사 도우미 (Dr. Assistance)들이 아기 낙태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법안. 더욱이 이미 거의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빼낸 아기를 죽이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기에 매우 비도덕적이고 산모에게 나쁜 법안.
SB323 :크리스천 청소년단체 등 크리스천 비영리단체들이 동성애자를 거부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협박과 같은 법안.

침략당하는 공립학교

AB1266 :공립학교(K-12th)의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클럽, 남녀가 할 수 없는 운동 등을 함께 사용 및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야말로 어린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완전히 세뇌시킬 수 있는 치욕적이며 매우 위험한 법안.

왜곡된 동성애/성전환자/양성애에 대한 혼란스러운 성교육:2월의 Not in Our Week에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학습과 기독교를 모독하는 학업 등을 시작으로 4월 Day of Silence (침묵의 날), 교사를 포함 학교 전체가 수업시간에 침묵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에 이어 5월에는 Harvey Milk Day를 통해 캘리포니아 최초의 동성애자 '할비 밀크'를 순교자와 영웅으로 일컬어 의무적으로 배우게 한다. 할비 밀크는 아동성관계, 아동 포르노, 마약으로 얼룩진 삶을 산 사람으로 단지 왜곡된 이미지만을 학교에서 가르치며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는다.

이외에도 지금 미국, 특별히 민주당이고 자유주의이며 동성애 운동가 정치인이 대부분인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심각한 법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법안들은 거의 모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기에 현재의 공립학교는 고칠 수 없으리만큼 심각성을 뛰어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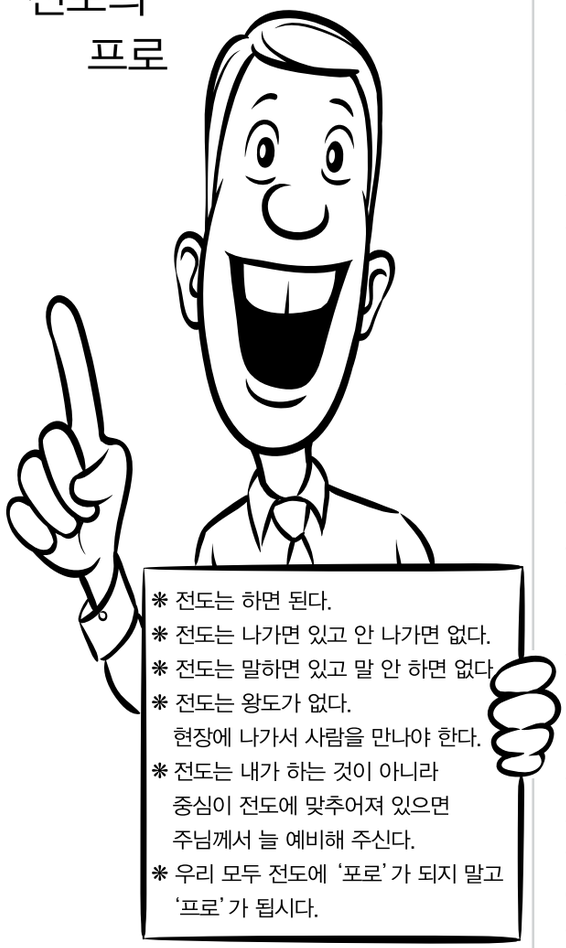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와 교회는 앞으로 더 어두워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상 속의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우주적 차원의 리더로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철두철미하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혼자 서야 할 때에, 엄습해 오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모든 산 같은 시험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이 여기 있다고 지적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용기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다음세대로 준비시켜줘야 한다.

그 준비는 가정의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들은 4살 무렵부터 시작, 적어도 13살까지는 자녀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13세부터 자녀가 그동안 배운 성경적 가치관을 적용할 기회를 성경적 자유를 통해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들을 더 많이 존중해 주고, 실수를 용납하는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지켜봐 주기도 하고, 인도하며, 결국은 그들이 성경적인 영적 분별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며 그들의 통찰력을 키워주는데 온 힘과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한다.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분야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김사라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인지', '무엇이 삶의 모든 분야인지', 또 '어떻게 가르칠지'는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전도의 프로



"비전은 품은 자의 몫이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11:12)

'나는 전도의 프로이고 싶다'에서 발췌
(김종균 목사 & 진송희 사모 지음)

Focus on the Families

내 가정을 지킬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골치 아픈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종교와 정치를 대화의 토픽으로 삼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사회 정치적 이슈는 다소 멀고 낯선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파고들어 가족의 성경적 가치관을 뒤흔들 때, 건전한 시민을 길러 낸다는 미국의 공립학교가 비성경적이고 비윤리/도덕적 가치관을 다양한 가치의 하나로 존중하여 소개할 때 흔들리는 가정의 가치관을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What You Can Do Be Aware! 학부모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 알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은 "family diversity", "bullying prevention", "tolerance", "social justice"등의 이슈로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이와 관련한 교수안, 도서실 소장자료, 시청각 교재의 종류 등을 요청하여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발견되면 교사, 교장, 학교이사회, 교육구 측에 부모의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이에 필요한 절차나 자료는 TrueTolerance.org 'TAKE ACTION' 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
http://www.citizenlink.com
http://www.focusonthefamily.com
http://www.libertyinstitute.org

1불 50전에 모든 것을 걸다

2005년 세계은행은 하루 생활비 $1.25을 최저 빈곤층을 구분 짓는 잣대로 정했습니다. 이는 식비뿐만 아니라 건강, 집세, 교통비, 교육비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하루 $1.50으로 산다"라는 기금 모금 캠페인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1불 50전에 모든 것을 건다면 나의 하루는, 혹은 콩고 땅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3: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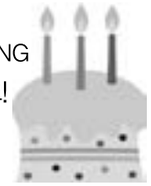
– See more at:
https://www.livebelowtheline.com
http://www.globalpovertyproject.com

"올해의 생일파티는?"

해마다 넘치고 넘치는 그저그런 선물대신 올해 우리 아이의 생일파티에서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보다 더 아름다운 신발들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선물대신 들고 온 새신발들을 모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어린이에게 전달해 보세요. 새신발은 건강과 학교 통학, 그리고 희망의 첫걸음을 약속합니다.
http://www.shoesfororphansouls.org/downloads/bday-invite-tie.pdf

Keller 신부가 창설한 The Christophers, Inc. (Christopher from the Greek words for Christbearer – an individual who sought to apply the principles of the Gospel in the marketplace of everyday life)는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밝힘이 낫지 않는가"라는 모토 하에 1949년부터 매해 문화계 각 분야에 걸쳐 소망과 희생,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바지한 이들과 작품을 선정하는데 **http://www.christophers.org**에서 추천하는 크리스천 어린이 도서와 영화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Three Minutes a Day 섹션에서 성경 말씀과 관련된 매일 예화를 읽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 여러가지 FUNDRAISING 생일 파티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http://www.crowdrise.com
BIRTHDAY FUNDRAISERS



SPONSOR A CHILD TODAY

compassion.com
As you exchange letters, send photos and offer encouragement in Jesus' name, your love will bring hope to a child that will last a lifetime. Sponsor a child today!

worldvision.com
As a child sponsor, you can help lift a child out of poverty by providing access to life-saving basics like clean water, nutritious food, healthcare, and more.

gfa.org
Give hope to a child and enable Christ's love to reach a family in Asia

Tip: How To Find The Right Child-sponsorship Charity
건강한 재정상태, 종교적 단체인가, 커뮤니티 후원 혹은 아동개인 후원인가, 월 후원금 $10-40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charitynavigator.com에서 자선단체의 건실한 운영상태와 평가도를 찾아볼 수 있음(참고: cbsnews.com February 11, 2009)

childcareworldwide.org
Child Sponsorship empowers children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through education. You can change the life of one child.

savethechildren.org
Sponsorship is a special kind of giving that creates a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 community in which Save the Children is helping to create real and lasting change. It provides more than the satisfaction that comes with aid for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it delivers a special opportunity to witness young lives lifted over time.

cfcausa.org
Christian Foundation for Children and Aging / We don't see poverty. We see potential.

childfund.org
ChildFund will use your sponsorship contribution of$28 per month to provide your sponsored child with what he or she needs to be healthy.

christianrelieffund.org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sharing the love and provision of God with these precious children.

막내가 어느덧 한 살이 되었습니다. 두 형들과 바깥활동이 잦다 보니 아픈 횟수가 많아지는 듯해 마음이 아파져 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잠들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 아이를 달래고 저의 마음도 달래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줘"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의 힘들었던 마음도 치유해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합니다. 저의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 가을, 살림을 도와줄 가족 하나 없이 연년생의 활발한 두 아이들과 함께 소질 없는 집안 살림하랴 회사 일로 바빠 매일 퇴근이 늦는 남편에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혼자 다 해보려고 하는 저에게 뜻밖에 임신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는 가족은 조심스레 임신 중절을 권유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저는 새벽기도에 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눈물로 간구하게 되었고 QT 나눔방 식구들과 친정엄마처럼 신경 써 주시는 권사님께 저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옆에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받고 임신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 축복의 통로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할 뻔 했다는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했지만, 아이가 나오니 생활은 저에겐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갓난아이와 그리고 2살, 3살의 큰아이들과의 하루하루는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생활 중 막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신랑의 한 달간 출장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의 출장 계획을 듣고 평소에도 퇴근이 늦은 신랑이니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어차피 내가 다 해왔으니 신랑이 없어도 나에겐 별다를 봐 없어'라며 신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수유를 해야 하는 막내와 다 같이 한침대에서 자다 보니 막내가 울면 아이들이 다 깨서 같이 울어버리고 주말에도 혼자 셋을 감당하려니 저도 같이 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신랑에 대해 교만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새벽에라도 같이 육아를 도울 수 있고 주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감사하고 다시금 부부 관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면서 둘일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출을 한번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네가 그러면 다시는 안 나간다"라는 지키지 못할 협박에다 막상 나가서는 무슨 사고라도 날까 싶어 경고와 제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바로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차로 데리고 가 때렸던 어리석은 엄마였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 했지만 저는 어떻게 할 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육아서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책하는 제게 "하나님께 그냥 나 자신을 보이고 힘들다 이야길 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할 지, 저 자신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제 속에 묵은 마음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힘든 일이며 소소히 있는 기쁨이며 다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면 그냥 성경을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려는 노력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셋밖에 안 키우는데도 종일 거울 볼 여유도 없이 집안은 엉망에다 하루가 25시간이었으면 하고 지내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데려가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시고 다그치지도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보필하면서 시련이 올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저도 모르게 준비하신 것을 하나씩 꺼내 놓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큐티 나눔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시더니 이번 봄엔 제자훈련 제의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놀랐지만 제의하신 분이 기도 중에 제가 떠올랐다고 하시더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해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즐겁게 사랑하는 식구들과 지내보려 마음을 다져봅니다.

–이진선

<학부모 간증 2>

믿음의 계보를 소망하며...

5년 전 한국을 떠나 남편 직장문제로 미국에 와 살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남편 회사 동료였던 분가 이전 목자님의 초대로 목장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 출석하고 있는 목자님의 권유로 매주 목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덕분에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쉽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워서 저를 빼고는 저희 양가 가족들은 예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또한 목장은 매주 출석하지만, 아직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은 지금까지 집안에 물려 내려왔던 영적으로 죄인 된 모습이 첫째 아이에게 보여 아이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3학년인 첫아이 성완이 역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교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장의 다른 어린 친구들은 수월하게 하는 영접 초대도 완강히 여러 번 거부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울고 짜증 내면서 믿음 약한 저를 얼마나 시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12:1-3)

그런 성완이가 작년 9월부터 더는 불평 없이 교회에 나가고 일 년에 두 번 초등부에서 World Pray 하는 날에는 예배에 늦지 않게 가야 한다며 재촉하고 Awana 역시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시간이 걸렸지만, 교회와 목장, 가정예배를 통해 이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이 시작되면서 손원배 목사님께서 올 일 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성완이도 초등부에서 똑같은 숙제를 받은 터라 한국에 있는 온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동안 미루었던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나게 찬양을 고르는 둘째, 셋째와는 달리

성완이는 찬양 시간에도 너무 조용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말이 없어 '내가 넘어야 할 믿음의 산이 믿지 않는 남편도 아닌 우리 성완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완이가 가정 예배 후 조용히 제게 와서 "Mom! In my thought, you may hate my words. But ask something to you? I know God lives in my mind, but I can't feel it."이라 했습니다. '성완이가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만나고 싶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성완아!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라며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처음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성완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늘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셔. 성완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그 순간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할까?"하며 기도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성완이 모습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성완이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성완이가 초등부 숙제인 Jesus Calling QT 책을 읽는 것도 매주 토요일 오후나 주일 아침에 밀린 숙제하듯 몰아서 급하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저와 함께 QT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의 나눔을 듣는 수준이지만 나눔 후, "오늘은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라고 한 마디하는 성완이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저로 말미암아 성완이가 믿음의 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저뿐 아니라 성완이도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둘이 함께,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완이가 즐겁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김민숙

<간증 3>

하나님의 선물

카톨릭 신자였던 저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를 찾던 중 2001년 Homestead 성전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주일만 지키면서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생각과 때론 교인들에 대한 거부감마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저 분주히 일에 몰두하며 살던 중 2011년 8월 행복했던 저희 네 식구에게 예기치 못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멋진 우리 첫째 아이 니콜라스의 왼쪽 뇌에 오렌지 크기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동안 매우 건강했던 아이가 물건을 집거나 글을 쓸 때, 문을 여는 도중에 오른손을 떠는 모습을 보고 저의 눈을 의심하며 혹시나 하여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게 되었고 CT와 MRI scan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Stanford 병원에 입원하여 Biopsy 수술을 한 후 우리 아이가 가진 병은 완치되지 않는 'Pilocytic Astrocytoma' 라는 뇌종양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면 오른쪽 완전 마비 (Paralysis)와 시력상실이 거의 확실하니 수술하면 안 된다는 청천벽력같은 Stanford 암 전문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유일하게 주어진 약물치료(chemotherapy)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일이 지금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건강했던 우리 아이한테 생기다니…. 정말 하늘이 닫히고 무너지는 듯한 어둠의 소리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달 만에 그렇게도 건강하던 아이가 점점 말라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과 수술할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 사람과 교회에 알려지며 많은 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던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혼자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한 지 3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Stanford 병원을 떠나 UCSF의 유명한 뇌수술 전문 의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8일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아무런 치료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MRI scan 하는 일 외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최고의 의사를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만남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믿음이 약한 저에게 많은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과연 기도해서 우리 아이의 병이 나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저는 곧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의 고난을 통해 가장 큰 선물로 저희 가정에 이처럼 값진 경험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더 가깝고 소중하게 여길 기회가 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저희 온 가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맡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목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논리와 증거, 과학적으로 따지며 믿었었는데 이제는 믿어져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주님을 찾을 이유와 필요성조차 잘 알지 못했었는데 아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전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상히 여기던 제가 이제는 주님이 믿어짐으로 인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직장에서도 부끄럼 없이 전하는 자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3부 예배 찬양팀을 돕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특별히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토록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 유한종

띠리리리 리리리~ 두둥~ 두둥~ 두둥~ 두둥~ "God is able~ He will never fail~ He is almighty God~"

중고등부실을 지나칠 때 듣게 되는 기타와 드럼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해 본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이는 소위 기성세대의 예배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배 순서도, 찬양곡들도, 찬양하는 손과 발과 몸의 움직임도, 심지어는 조명도 많이 다릅니다. 때로는 너무 자유분방한 분위기이기에 자칫 예배의 거룩함이나 경건의 모습이 없어 조금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매주 우리 학생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2년 전 미국에 와 임마누엘 교회에 둥지를 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중고등부를 섬길 마음을 주셨고 저는 아내가 선택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11년 전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호주에서 중등부 학생들을 섬겼던 경험을 돌이켜 보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데이빗 전도사님과 면담 후, 중고등부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감사하게 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생활을 13년간 하였어도, 신앙생활을 KM(한국어예배)에서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9년여 간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터라 영어로 학생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고, 찬양도 영어로, 성경도 영어로 읽고 나누고, 게다가 기도도 영어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시고 계심에 새롭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지난 해에는 전교인 성경통독 주제에 맞추어 학생들을 격려하며 영어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영혼구원 주제에 맞추어 매주 예배시간 전,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세계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1명의 친구를 위해 Journal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바빠 Journal이 처음 받은 그대로인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고 읽으며 올 한해를 지낼 때에 많은 학생이 친구를 전도하고 선교에 눈을 뜨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영혼 구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특정 지역 주민을 섬기는 City Impact 사역과 성경 번역 사역 One Verse에 한 달 1불에서 2불 정도씩을 기부하며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물질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사 간증 1>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혼구원을 위해 여러 사람을 통해 갖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전도와 선교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감동을 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갈등하며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다 결국 두 번의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자매. 평소에는 부끄러움이 많아 나서지 않으나,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선포하던 형제. 형제가 형제를 위해, 자매가 자매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이 학생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라게 될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 키우고 계심을 목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이지만, 임마누엘 중고등부 사역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 중고등부 예배시간에 부르게 되는 찬양을 온 맘을 다해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God is able~ He will never fail~
He is almighty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중고등부 교사 김우정

살롬 !!

늦깎이로 주님을 영접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봉사하는 분들을 보며, 누가 이 사람들의 봉사료를 주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보수로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영유아부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봉사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시작한 영유아부의 봉사는 조용하지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초보 신앙 생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과 낯선 환경에 맡겨짐으로 인해 불안감으로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장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불안해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는 이 아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45:5)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직장에서 하는 일 외에는 할 줄

<교사 간증 2>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매일 매일 넘어지는 저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항상 바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아이들이 자라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복의 통로로 다른 생명을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는 것이 없었던 제가 어른들을 대할 때 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능숙한 것을 보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저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도울 수 있게 준비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이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 보내시고, 아이를 보살피는 마음도 주신 것이 이 아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 들인 아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여 우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을 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저에게는 우는 아이의 모습과 나. 선생님의 보살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시면,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매일 매일 넘어지는 저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항상 바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아이들이 자라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복의 통로로 다른 생명을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교사 이종상

Pneuma of India

지난 호 이야기: 실업을 당해 모처럼 시간이 생기자 나는 경제적 궁핍과 근심 속에서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인도 단기 선교여행 길에 올랐다. 성령님의 인도 하심으로 기차에서 만난 열차안내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역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기차 안, 나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다 깜빡 잠이 들었다. 아! 도착지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층 침대 칸 위에서 그 청년이 쿵하고 뛰어내리며 하는 말 "굿모닝!" Oh Thank God. 주님이 주신 기회고 순간이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Hey! Brother, I don't have much time. I would like to introduce very special person to you. Would you like to hear about Jesus Christ?"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그 청년을 주님께 인도하여 현지 선교사 사모님과 계속 연락을 취하도록 연결해 준 뒤, 돌아오는 주부터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주일 예배를 나가기로 약속을 받고 기차역 앞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흘 후 미국 집과 교회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며 숙소에서 인도 크리스천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민박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인도 축구 프로리그를 뛰는 두 한국 청년 신호준, 신호승 형제 선수가 매일 한국 식사를 위해 왔다 간다는 것이다. 권사님은 장로님과 내가 짝이 되어 먼저 그들과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다. 식사 후 우리 숙소에서 장로님의 인도로 두 형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국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 미국도 아닌 인도에 이 두 영혼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인도 하심 자체만으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참으로 이번 여행으로 느낀 말씀 가운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7~38)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직접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 평생 다른 이는 가지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느끼지도 못할 귀한 주님과 동행한 단기 선교 여행이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전에는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고 나의 삶 속의 역동력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었고, 꼭 추수할 벼들이 머리를 내밀게 되는 것이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너에게 모든 것이 더하리라 한 말씀, 내 삶이 그리되었다. 인도인들 또 조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눌 때 먹을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종이컵에 마시면서 몇 년 전 플라스틱 종이류 쪽 일을 잠깐 맡은 경험을 생각해 보았다. 많은 인도 남성들이 직장이 없어 가정을 버리고 떠나고, 직장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과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국외로 수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교사님과 나누었다. 선교사님도 그러한 공장이나 기업이 있으면 당장 열 가정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며 함께 꿈을 나누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과 나누었던 대화와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기에 여기에서 그 같은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기 선교를 돌아와서 정확히 사흘 뒤에 믿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거의 일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던 옛 회사 분으로부터 아침에 인수제의에 관한 연락이 왔을 때, 멍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님의 일에 너무 놀랍고 당황해서 교회로 달려가 목사님께 "사실은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던 차에 내일모레 사인만 하면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났는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라고 여쭈었다. 목사님은 나에게 더 잘 어울리고 믿음 생활에도 더 좋을 것 같으니 새로운 오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인수할 자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던 차에 놀랍게도 목사님의 권면과 오너의 입에서 동시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똑같은 방도의 인수 계획론이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름은 손 목사님의 추천으로 Pneuma (성령의 바람)으로 정하게 되었고 어려웠던 회사를 넘겨받은 후 지금은 불과 몇 달 만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고, 매번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 예를 들어 Kasier에 보내는 물건이 애로 사항에 봉착했을 때, 갑자기 그날 어떤 두 분이 회사를 방문, 그 작업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며 해결한 후 그다음에 기적적으로 좋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모든 직원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며 나가는 회사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올리게 되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매출이 돌아와서 두 배 이상의 매출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손 목사님 말씀대로 "Our God is rich." 걱정하지 말라. 믿으라! 구하라! 외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가 생명이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 연약한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과 성령님께 몸과 마음을 내던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하는 기대와 성령님이 내내 나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Breath of God(Pneuma)."
설렌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업을 앙모 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기쁘다.

– 장길창

나의 찬양

겸손의 왕 [작사, 곡 : 천관웅]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겸손의 왕'은 2003년 천관웅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천관웅 1집(Jesus Generation)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한 것은 교회와 세상에 한발씩 담그고 방황하며 지내던 2003년 17살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찬양팀 드럼 반주자로 섬기고는 있었지만, 세상이 더 좋았고 그저 드럼 치는 것이 좋고 드럼이 멋있어 보여 찬양팀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관웅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겸손의 왕'이란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한 줄 한 줄이 제 삶에 연결되어 찬양을 들을수록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너무나 죄송스러워 어린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0 여 년이 흐른 2012년 여름…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었지만, 아직도 제 삶은 변한 것이 없었고 그저 주일에만 찬양팀을 섬기는 청년부 찬양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없던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라고 기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창조주의 아들을 조롱하던 모습, 갈보리 길을 오르실 때에도 손에 못이 박히실 때에도 보고만 계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 "제 구 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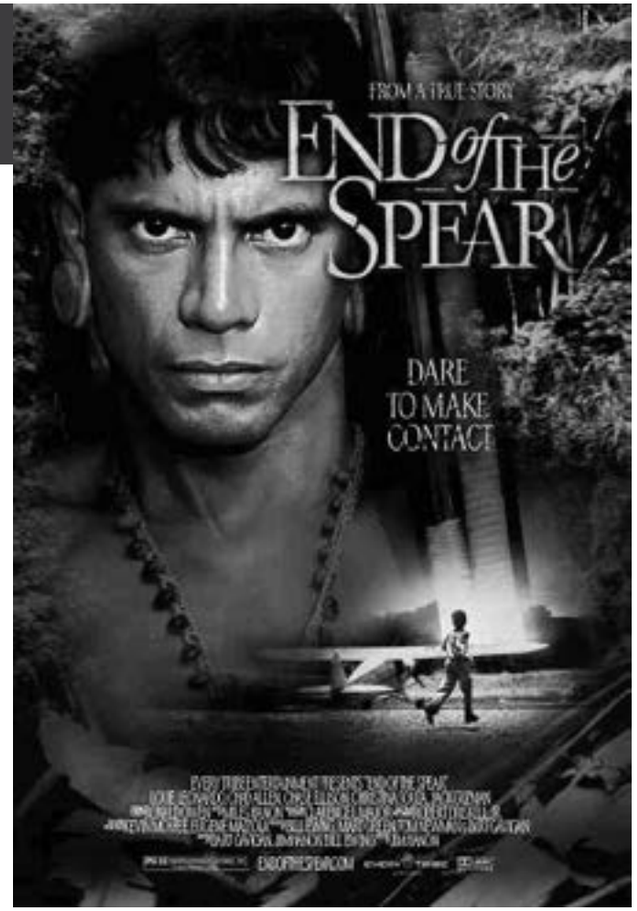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가사에 집중되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부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마음을 몹시 알고 싶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한다고 외치는 제가 전혀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제 가슴을 짓누르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들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고 '하나님! 버티기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심장을 찌르던 고통은 한순간에 없어졌지만, 그저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느낀 슬픔과 고통은 네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준거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의 입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 중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 주신 기도응답이 가장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렇게 모든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께도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청년부 정아론

〈크리스천 영화방〉

End of the Spear (2005년 제작 다큐드라마)



http://www.culturevulture.net/Movies/EndoftheSpear.htm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 밀림에서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지구 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마존 밀림의 와오다니 부족을 찾아 젊은 미국인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이 길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일평생 날카로운 창에 의지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며 사는 와오다니 부족. 살아남기 위해 살인과 복수와 폭력이 자행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가족과 이웃, 친구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오직 뾰족한 창의 힘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와오다니 부족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5명의 선교사는 오래전부터 와오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먼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경비행기를 타고 원주민 거주지역 상공을 맴돌며 생활필수품을 내려주고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한다.

와오다니 부족을 만나러 가기 전날,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선교사 아빠에게 5살 어린 아들 스티브가 질문한다. "아빠, 그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방어하실 거죠? 그들에게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사용할 수 없어.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우리는 준비 되어 있지만 말이야."

다음날 비행기에서 내려 원주민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며 다가가는 5명의 선교사. 하지만 복음을 제시하기도 전, 적으로 오해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날카로운 창에 찔린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 젊은 선교사는 자신을 찌른 원주민을 보며 "난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둔다. 이렇게 다섯 명의 전도유망한 선교사들이 미개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을 때, 타임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분노한다. 하지만 그들의 부인들은 이렇게 답한다. "낭비라니요? 우리의 남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지금껏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어린아이들을 앞세워 남편들을 죽인 원주민들이 사는 밀림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자신들이 죽인 남자들의 아내들이 밀림에 들어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어려움을 나누는 상황을 원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죽은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가 장성한 후 다시 밀림으로 들어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을 만나 복수 대신 오히려 그들과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점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들려왔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 그것도 남편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큰 사랑이자 용서이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낭비도 아니요 헛된 죽음도 아닌 썩어짐으로 큰 결실을 맺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저항 한번 없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 실패한 선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와오다니족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가족과 친구를 죽이고---. 복수를 위해 다시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겼던 와오다니족. 그 상처 난 마음에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위로해 주고 사랑으로 함께하셨고 그들의 죄까지 덮으셨다. 이 영화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이정열

"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All your children
will be taught by the LORD,
and great will be their peace."

-이사야 54:13

2013년
영유아부
VBS

행복한 사람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offspring a reward from him."
– 시편 127:3 –

*본 사진은 피촬영자의 동의 하에 게재되었습니다.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유택종
기획	이윤선
진행	김정신/김범진/장은영
교정 및 교열	김백미/정현주
사진	김범진/윤영숙
편집디자인	홍정희

*임마누엘 다음호(Vol.3)는
우리 가정교회 이야기로 꾸며가는
목장 특집호입니다.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 263. 5100
www.kepc.org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